

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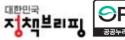
보도 일시	2022. 4. 6.(수) 09:00 국제엠바고	배포 일시	2022. 4. 6.(수) 07:00
담당 부서	개발금융국	책임자	과 장 이상규(044-215-8720)
	국제기구과		사무관 최봉석(bongseokchoi@korea.kr)

아시아개발은행(ADB),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

-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며 아시아 5.2%, 한국 3.0% 성장세 유지 -

- □ 아시아개발은행(Asian Development Bank, ADB)은 4.6.(수) 08:00시(필리핀 마닐라 기준, 한국시각 09:00), **2022년 아시아경제전망*(Asia Development** Outlook. ADO)을 발표하였음
 - * ADB 아시아·태평양 지역 회원국(49개) 중 일본, 호주, 뉴질랜드는 제외
- □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**아시아 지역**은 코로나19에서 점차 회복하며 '22년 5.2%, '23년 5.3%의 **강한 성장세를 유지***할 것으로 예상함
 - * "GDP Growth in developing Asia is expected to stay strong, at 5.2% in 2022 and 5.3% in 2023"
 - o 아시아는 최근 **지정학적 불확실성**에도 불구하고, 백신 접종 확산 등으로 이전 팬데믹 시기보다 경제 개방성이 확대되며 견고한 성장을 유지함
 - o 또한, **아시아 물가상승률**은 '21년 타 지역 대비 상승 압력*이 낮았으나. 향후 '22년 3.7%, '23년 3.1%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
 - * '21년 물가상승률(%): (아시아개도국) 2.5% (중남미) 9.3 (사하라이남 아프리카) 10.7
- □ 한국의 경우 역성장에서 크게 회복한 '21년(4.0%)과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인 '22년 3.0%, '23년 2.6% 성장*할 것으로 전망함
 - * "After exceptionally high growth in 2021 from a low base in 2020, the economy is expected to settle into more sustainable growth at 3.0% in 2022 and 2.6% in 2023"

- ㅇ 이는 고용시장 개선에 힘입은 민간소비 회복세와 함께 국가 간 이동 제약 완화. 미·중 등 주요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임
- **물가상승률**은 고유가, 식품물가 상승 등 **일시적 요인**으로 인해 '22년 3.2%. '23년은 향후 이러한 요인이 완화되며 2.0%로 전망함
- □ ADB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은 중앙아시아에 집중*될 것이나 에너지·식품물가 상승 등으로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.
 - * "The economic fallout of the Russian invasion will most affect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"
 - o 이외에도 미국 통화 긴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,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19 변종 발생 등 불확실성 확대를 위험요인으로 제시함
- □ 마지막으로, ADB는 **아시아 개도국의 성장 도전요인**을 극복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 투자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세수 동원이 중요하다고 권고함
 - 급성장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**효율적인 부가가치세제** 도입, 조세지출 최적화, 환경·보건 등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.
 - **근본적인 조세 개혁**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**조세 행정력 강화**, 납세자 의욕 제고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
 - ※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아시아개발은행(ADB) 보고서를 요약·정리한 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ADB 홈페이지(www.adb.org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



참고

ADB 지역별 성장률·물가상승률 전망('22년, '23년)

 구 분	GDP 성장률 (%)				물가 상승률 (%)			
T E	2020	2021	2022 ^e	2023 ^e	2020	2021	2022 ^e	2023 ^e
아시아 개발도상국	△0.8	6.9	5.2	5.3	3.2	2.5	3.7	3.1
중앙아시아	△2.0	5.6	3.6	4.0	7.7	8.9	8.8	7.1
아르메니아	△7.4	5.7	2.8	3.8	1.2	7.2	9.0	7.5
아제르바이잔	△4.3	5.6	3.7	2.8	2.8	6.7	7.0	5.3
조지아	△6.8	10.6	3.5	5.0	5.2	9.6	7.0	4.0
카자흐스탄	△2.5	4.0	3.2	3.9	6.8	8.0	7.8	6.4
키르기스스탄	△8.4	3.6	2.0	2.5	6.3	11.9	15.0	12.0
타지키스탄	4.5	9.2	2.0	3.0	9.4	8.0	15.0	10.0
투르크메니스탄	-	5.0	6.0	5.8	10.0	12.5	13.0	10.0
우즈베키스탄	1.9	7.4	4.0	4.5	12.9	10.7	9.0	8.0
동아시아	1.8	7.6	4.7	4.5	2.2	1.1	2.4	2.0
홍콩	△6.5	6.4	2.0	3.7	0.3	1.6	2.3	2.0
몽골	△4.6	1.4	2.3	5.6	3.7	7.1	12.4	9.3
중국	2.2	8.1	5.0	4.8	2.5	0.9	2.3	2.0
한국	△0.9	4.0	3.0	2.6	0.5	2.5	3.2	2.0
대만	3.4	6.4	3.8	3.0	△0.2	2.0	1.9	1.6
남아시아	△5.2	8.3	7.0	7.4	6.5	5.7	6.5	5.5
방글라데시	3.4	6.9	6.9	7.1	5.7	5.6	6.0	5.9
인도	△6.6	8.9	7.5	8.0	6.2	5.4	5.8	5.0
스리랑카	△3.6	3.7	2.4	2.5	4.6	6.0	13.3	6.7
동남아시아	△3.2	2.9	4.9	5.2	1.5	2.0	3.7	3.1
브루나이	1.1	△1.5	4.2	3.6	1.9	1.7	1.6	1.0
캄보디아	△3.1	3.0	5.3	6.5	2.9	2.9	4.7	2.2
인도네시아	△2.1	3.7	5.0	5.2	2.0	1.6	3.6	3.0
라오스	△0.5	2.3	3.4	3.7	5.1	3.7	5.8	5.0
말레이시아	△5.6	3.1	6.0	5.4	△1.1	2.5	3.0	2.5
미얀마	3.2	△18.4	△0.3	2.6	5.7	3.6	8.0	8.5
필리핀	△9.6	5.6	6.0	6.3	2.4	3.9	4.2	3.5
싱가포르	△4.1	7.6	4.3	3.2	△0.2	2.3	3.0	2.3
태국	△6.2	1.6	3.0	4.5	△0.8	1.2	3.3	2.2
베트남	2.9	2.6	6.5	6.7	3.2	1.8	3.8	4.0
태평양 도서국	△6.0	△0.6	3.9	5.4	2.9	3.1	5.9	4.7